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필리 2,16)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f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대기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p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예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 2. 3-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제2독서]..... 1코린 15,20-26.28

[11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인공 지능)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언제나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마태 25,31-46

[성가안내]

- 입당성가 [76] 그리스도 왕국
- 봉헌성가 [41] 형제에게 베풀 것
- 성체성가 [53] 주님은 나의 목자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김희차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김춘운 요셉	린다 김 테레사
김양수 요셉	김승한 어거스틴
전덕림 모이세, 정두선 마리아	정종철 안드레아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최병남 미카엘라
생미사	
박연옥 엘리사벳	김승한 어거스틴
윤동진 프란치스코	이기수 베네딕토
이영애 레지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김현용 니콜라오	박신희 리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성가대)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1월 22일	이영노 울리안나	조규진 아네스	박기웅 사도요한	이영노 울리안나	장혜윤	
11월 29일	박기목 알버트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애희 테클라	김종선	

온 몸으로 성경을 읽다

성경 필사는 눈이나 소리로만 성경을 읽는 것과 달리 몸의 수고를 감수하고도 성경을 읽는 그야말로 '온 몸으로 성경을 읽는' 신심행위다. 오늘날에는 성경 필사는 신심행위 중 하나일 뿐이지만, 성경 필사는 성경의 긴 역사와 함께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성경의 기원, 성경 필사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기록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경 필사의 힘이었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알려졌는데, 인쇄 기술이 없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은 당연히 '필사'였다. 사람들은 누군가 기록한 인간의 역사에 함께한 하느님 이야기들을 옮겨 적었고, 이를 모아 책으로 엮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됐다. 하지만 기원전 1000년경에는 성경을 기록할 종이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성경 필사는 자연물에 이뤄졌다. 그 대표적인 기록 매체가 파피루스다.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자연물인 만큼 내구 성도 약하고, 습도에도 취약했지만, 가볍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글의 분량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적합했다. 이 파피루스의 중심 무역지로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비블로스'가 유명했는데, 이 지명이 그리스어의 '책'이라는 말로, 영어의 '바이블(Bible)'이라는 말로 이어졌다. 파피루스와 함께 성경 필사자들의 사랑을 받은 기록 매체는 소·양·새끼염소의 가죽을 표백한 후 얇게 가공한 양피지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배 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양과 염소를 잡아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이때 바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성경을 필사하는데 사용했다.

수도원의 필사실

수도자들은 성경 필사를 위해 수도원에 '필사실(Scriptorium)'을 만들었다. 특히 필사는 훈련 받은 수도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었다. 덕분에 수도원은 성경을 양산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수도자들의 활동은 기원전부터 이어왔는데, 사해 연안동굴에서 생활하던 에세네파 콤란(Qumran) 수도자들이 잘 알려졌다. 기원전 2세기부터 활동하던 콤란의 수도자들은 성경 필사실을 갖추고 성경 연구와 성경 필사에 매진했다. 그러나 로마군이 이스라엘로 진격하자 모든 필사본들을 동굴에 숨기고 흩어졌다. 이 성경 필사본이 1947년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 필사본의 발견으로 구약성경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중세교회의 수도회 역시 성경 필사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래서 베자 캄브리지 사본, 클레르몽 사본, 시나이 사본, 코리데티 사본 등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오랜 성경 사본 중 대부분이 수도회가 보관해오거나 수도원에서 발견된 필사 성경들이다.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이래, 인쇄된 성경이 빠르게 보급됐지만, 성경 필사는 여전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오랜 세월을 걸쳐 정성스럽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필사가 단순히 성경을 양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기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경 필사로 뿌리내린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신앙선조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필사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한글 성경 필사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활동이었다. 물론 신앙선조들에게는 완전히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 모든 성경을 필사할 만큼의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더 많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복자 최창현(요한)은 전례에 따른 성경과 묵상, 해설이 담긴 「성경직해 광익」과 성경의 일부가 인용된 여러 교회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또 성 민극가(스테파노), 복자 정광수(바르나바)·윤운혜(루치아)·김사집(프란치스코) 등 수많은 신앙선조들이 이를 필사해 스스로 익히고 또 보급했다. 1864년 성 베르뇌(시메온) 주교가 목판 인쇄소를 만들기 전까지 신앙선조들은 필사에 필사를 거듭해 한글로 성경의 말씀을 전했고, 이를 통해 빠르게 신자가 늘어났다.

출처/가톨릭 신문, 이승훈 기자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봉운(바오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3.30 정인해 예로니모
- 4.4 김춘운 요셉
- 4.8 김화자 소화데레사
- 4.12 이신환 마르코
- 4.24 임태흠 실베스텔
- 4.24 이민재
- 4.29 방효덕
- 5.8 원광남
- 6.1 이경자 벨라뎃다
- 7.5 이창울
- 8.22 박송남 프란치스코
- 9.20 배재철 안토니
- 9.21 김정숙
- 10.3 황봉애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9:15 Korean Mass"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님 신부님 미사 일정

새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1.29 :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

12.6 | 13 : 김학범 알폰소신부(메리놀회)

12.20 | 27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왁대교구)

내 스스로

깊이를 잴다는 것

깊이를 잴다는 것

이 길이와 깊이로

얼마만큼

세상을 포용할 수 있을까

돌아보는 아침



이순구(베네딕도)



성탄 맞이(11.29-12.24)~~

마니또, 수호1004

"시크릿 산타가 되어주세요!"

◦ 마니또 모집 : 11.29 미사 전까지

◦ 마니또 뽑기 : 11.29 미사 후, 성당 입구

◦ 마니또 발표 및 선물 전달 : 12.25 미사 후, 성당 입구에서 개별적인 만남

★마니또 미션을 수행하세요!!

1. **기도선물** : 미사 봉헌, 미사영성체, 묵주기도, 화살기도, 주모경 등을 한다.

2. **성탄카드** : 성탄 인사와 함께 위 1항의 <기도 선물> 숫자를 적는다.

3. **선물준비** : 15~30불의 마니또가 원하는 선물

위령성월, 묘지방문 전대사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이때, 본당에서는 적은 금액이나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원하시는 신자분께서는 아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익명을 보장합니다.

seoulosb@gmail.com 헬레스틴 수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으로 검색했을 때 아직은 검색순위가 낮아 상단에 뜨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위 한글 이름으로 검색하여 다른 곳이 아닌 하단의 방문 기록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2021 달력배부 안내

12월 초중순에 달력배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달력배부는 직접 수령이 원칙이었으나 초유의 사태인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1. 전달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
2. 원거리 거주 신자분을 대상으로 발송. 직접 전달할 수 있거나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1 주보 광고

◦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워싱턴 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40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 위령 성월 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CLEAR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님)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 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청년회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청년회(FYNY) 모임	주일 미사 후	Damiano Hall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 04:00pm	Conf. Rm(2F)
Choir 2 (야웨이레 찬양팀)	첫째 토 12:00-03:00pm 둘째 토 03:00-05:00pm	Francis Room
청년 성서모임	주일 01:00pm	Damiano Hall
청년 성령기도회/ 청년 Lectio Divina	1st, 3rd 수 07:10pm/ 2nd, 4th 수 07:10pm	Francis Room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에서 온 편지

하느님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에게
늦가을의 아름다운 위로를 건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맨하탄 한인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저는 지난 10월에 작은형제회 한국관구의 봉사자로 선출된 김상욱 요셉입니다.



관구 봉사자 후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직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맡지 않으려 노력했다가, 봉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봉사자로 선출이 되고 이 직을 수락할지 말지 선택권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약하고 모자라는 제가 봉사자로 뽑힌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생각과 더이상 하느님 뜻에 '아니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예'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저에게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수도원에 살면서 하느님 뜻보다는 제 뜻과 제 욕구에 더 기울어져 살았었는데, 조금은 그 무게 중심을 하느님께로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의 목소리를 높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함께 사는 수도회 형제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움직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형제들이 사목하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네요.

맨하탄 한인공동체는 저와 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 서품을 받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공동체에 파견을 받았었지요. 저는 사목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몰랐기에 뉴욕으로 가겠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재의 수요일에 출발했고, 뉴욕에 도착하니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공동체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과 수도원 공동체 형제들의 형제애가 있었기에 제가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맨하탄 한인공동체는 첫 사목지였습니다. 그곳의 신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요. 뉴튼 수도원에서 추석 명절을 지냈었고, 바자회와 음악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갈등을 만나며 함께 고민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행들 앞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마음 아파했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좋은 것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슬픈 것도 함께 나누었기에 그 기억은 더 깊이 저에게 박혀 있습니다. 가끔씩 미국생활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났던 이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목을 할 것이고, 저는 그 형제들을 통해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사목을 했던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이 떠났고, 지금은 김기수 신부님과 근처의 신부님들이 미사를 해주고 있지요. 한국에서 맨하탄 한인 공동체로 파견될 신부님이 준비되었으나, 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 인터뷰를 하지 않아 비자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사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바로 인터뷰를 하고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저 또한 형제들이 사목하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맨하탄 한인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김상욱 요셉